

독일 연구 기관의 노사 관계 현황

이 현 규<sup>1)</sup>

(과기처 협력1과 과장)

## 1. 독일 노사 관계의 특징

독일은 우리 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단위 사업장별로 노동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고, 전국 단위의 산업별 혹은 직종별 노조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결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단체 교섭도 산업별·직종별 노조의 중앙 조직 또는 지방 조직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 교섭의 결과에 따라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등을 포함한 노사 협약이 체결되며, 동 협약은 독일 내 동종의 사업장에 대해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자 조직과 사용자 조직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현재 독일 내 전체 근로자의 40% 정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노조 가입률은 낮은 편이나, 노조가 전문 분야별로 조직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다. 각 산업별 노조는 노조원들의 분담금(월급여의 1%)으로 운영되며, 단체 교섭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산업,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6개의 단위산업별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독일노동연맹(DGB : German Federation of Labor)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국 노조 중앙 조직으로, 동조직에 전체 노조원의 80%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

독일 노사 관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공동 결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미의 단체 교섭방식이 노조와 경영을 대립된 힘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반면, 독일의 단체 교섭 방식은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독일이 선진 국가들 중에서도 노사 분규가 가장 적은 국가 중의 하나로 성공한 것도 바로 이러한 공동 결정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노사간의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측 조직은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을 동시에 포함하는 사실상의 종업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이다(종업원 500인 이상의 기업은 감독 위원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은 경제 위원회,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은 경영 협의회가 공동 결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노조-사용자 단체간의 단체 협약은 주로 임금 결정 등과 같은 문제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공동 결정 조직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근로 조건, 인사 및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공동 결정 제도는 정치, 종교, 과학 및 언론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연구 기관의 경우, 공동 결정법의 일반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지 근로 시간, 안전 사고, 보수 지급 규칙, 전직, 해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만 공동 결정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2. 연구 기관(MPG)의 노사 관계 현황

독일 MPG 연구원들의 경우 노조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독일 노동 연맹(DGB) 산하의 공공 서비스 및 운송 노조(OTV)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독일 사무직 노동 연맹(DAG)에 가입한다. OTV는 노조 가입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공무원, 교수, 은행원을 포함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등 광범위한 계층이 소속되어 있으나, 각 기관에서 보직을 갖는 자는 가입하기 않는 것이 관례이다..

독일 전체의 노조 가입률이 40% 정도인데 반해, MPG 본부 및 각 연구소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은 10% 정도로서 일반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노조에 가입한 연구원 중에서 2/3이상이 사실상 연구소 내 기술 또는 행정 지원 요원으로서 실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자 또는 연구원의 노조 가입률은 5% 미만이다(MPG 산하 연구소 중 가장 가입률이 높은 juelich 연구소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률은 20% 미만임). MPG와 우리 나라 연구소 노조가입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MPG와 국내 연구소 노조 가입 현황 비교

( '92. 1. 현재 )

	MPG	국내연구기관
연구 기관 수	62개	20개
노조 결성 기관		15개
연구원 수	10,000명	10,749명
노조 가입자 수	1,000명	5,165명
노조 가입률	10%	48%
순수연구직 중 노조 가입률	5%	3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PG 연구원의 노조 가입은 자유이나, MPG 노조원들의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 활동은 금지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연구소 내에서는 노조원의 대표자 선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OTV와의 연결 역할을 위한 대표자의 선출은 가능하며, 그 역할은 사업장 외에 한정되어 있다. OTV에는 MPG뿐만 아니라 독일 내 13개 대형 연구 기관의 연구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단체 교섭시 모든 연구 기관의 노조측 당사자는 OTV가 된다. 아울러 MPG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사용자측의 협상 대표는 연방·정부가 되며 단체 교섭시에 연방 정부 소속 각부처의 협상 대표를 단일화하기 위해 모든 협상에는 내무부 장관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다. OTV와 연방 정부와의 단체 교섭은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사 양측에 평화 의무가 있으며, 교섭 실패가 선언되면 노조는 노조원 투표를 통해서 단체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파업 결정은 노조원 7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한편 독일 노사 관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공동 결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기관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인정된다. 즉 MPG 등 연구 기관의 운영(연구 방향 및 분야 결정, 연구 우선 순위 및 연구비 배분 원칙 결정 등) 이나 인사 문제(보직을 가지는 관리자의 인사 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 노조는 공동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다만 근로 시간, 보수 지급 방법, 휴가, 직업 교육, 연구원 채용, 전직, 여가 선용 시설 등 연구소 내 근로 조건과 연구원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인력 수급 계획, 연구원 해고, 작업 절차, 신규 조직 설립 등 일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석 1) 前 EC 과학관

